

피아니스트 최희연



11월 6일, LG 아트센터에서는 실연의 감동이 청중을 휘어잡는 열정의 분위기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일반 청중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전공한 전문 음악인까지도 경이로운 눈빛으로 무대를 응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날 무대의 주인공은 금년 초 서울음대 교수로 임용된 피아니스트 최희연이었다. 물론 최희연은 이미

서울예고 재학시까지 동아, 중앙, 한국, 이화·경향 등 국내의 대표적인 콩쿠르를 석권함으로써 연주력을 인정받았고 독일에서의 오랜 유학생활 중에도 역시 국제적인 콩쿠르 입상과 다양한 연주 활동으로 연주가로서의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번 독주회의 관심은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앞서 그가 어떤 음악적 성숙함을 자신의 연주속에 담아 내느냐 하는 것이었다.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부터 그가 보여준 겸손함과 신실한 매너, 순수한 맑은 눈빛은 그의 음악의 색깔을 예견케 했고 그러한 기대에 걸맞게 조용히 슈베르트의 「즉흥곡 작품90의 3」을 탄주하기 시작했다.

그가 이날 무대에 올린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소나타 내림나장조」와 후반에 연주한 쇼팽의 「연습곡 작품25」 전곡이었는데 「즉흥곡」은 일종의 도입부로서 청중의 마음을 「소나타 내림나장조」로 끌고가려는 의도에 의해 초두에 배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보면 「소나타 내림나장조」 1악장의 시작 부분과 「즉흥곡 내림나장조」의 음악적 분위기는 기쁨도 눈물 근처에 있다는 슈베르트의 억제된 열정이 비슷하게 녹아 내리는 것 같아 담담하고도 깊이가 느껴지는 최희연의 「즉흥곡」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 청중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한곳으로 모아지고 있었다. 최희연은 결코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음량을 충분히 표출하고 있었고 손

최희연의 달관된 연주력은 쇼팽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12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표출도 그러하지만 3번의 유니크한 리듬감, 5번의 스케르초 처리, 9번의 감칠맛나는 표현은 테크닉의 원숙함을 맛보게 했고 10번에서 12번에 이르는 극적 박진감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정열은 장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끝으로 모아지는 에너지의 핵심은 살아 숨쉬는 소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소나타 내림나장조」는 처음부터 먼 허공을 응시하듯 간절함으로 시작했고 어떤 욕심의 그늘도 용인하지 않는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를 그는 내재된 열정을 끝까지 터뜨리지 않은 채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끌고 갔다. 왼손 저음의 트릴 처리와 내림나장조에서 내림사장조로 넘어가는 소담함은 숨소리마저 멎게 하는 긴장이었는데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연주시간 40여 분의 「소나타 내림나장조」를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소화해 내었다. 전반에서 슈베르트로 청중을 깊숙한 서정적 아름다움으로 인도한 최희연은 긴장을 풀어 내려는 듯 쇼팽의 「연습곡 작품25」 전12곡을 무대에 올렸다. 최희연의 달관된 연주력은 쇼팽에서 정점을 이루었다.

12곡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표출도 그러하지만 3번의 유니크한 리듬감, 5번의 스케르초 처리, 9번의 감칠맛나는 표현은 테크닉의 원숙함을 맛보게 했고 10번에서 12번에 이르는 극적 박진감과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정열은 장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전반의 슈베르트적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는 듯 「연습곡 1, 2번」에서 그는 음악의 폭을 줄이며 아름다운 피아니즘의 세계로 청중을 인도 했지만 어느새 변화해가는 다양한 피아노 예술의 뜨거운 힘은 연주회장을 빠져나가는 청중의 표정을 상기시켜 주었다. 고전음악의 참모습과 질높은 연주는 언제나 청중을 감동으로 몰고 간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 피아니스트 최희연의 등장은 한국음악계와 음악문화를 위한 또하나의 희망적인 계기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

글·한상우